



군종주보

2021년 11월 21일(제1062호) 온 누리의 임금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왕 대축일(상시 주일)

발행 : 군종교구 농보국 | 전화 : 02)749-1921, 02)900-7756 | FAX : 02)790-5768 | http://www.gunjong.or.kr | email : hongbo@gunjong.or.kr

말씀

“ ‘끝’ 이리 말할 수 있나요?”

올해 2021년에는 코로나로 인해 진행되지 못했던 2020 도쿄 올림픽이 열렸었습니다. 당시 올림픽 중 기억에 남는 여러 장면 중에는 남자 양궁 단체전에서 오진혁 선수가 ‘끝’이라는 말을 외치며 마지막 10점을 쏘았던 카리스마 있는 모습이 머릿속에 남아 있습니다.

오늘은 연중 시기의 마지막 주일인 온 누리의 임금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왕 대축일입니다. 전례력의 마지막 주일, 다시 말해 한 해의 ‘끝’인 오늘의 전례 시기는 한 해를 매듭짓는 시간을 줌과 동시에 우리가 그동안 그리스도인답게 잘 살아왔는지를 돌아보게 하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오늘 복음에 비추어보며 우리가 진리 안에서 잘 살아왔는지를 성찰케 합니다.

진리란 무엇일까요? 신학적·철학적으로 여러 정의를 내릴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적어도 성경 안에서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진리.’라고 말이죠. 진리가 곧 예수님입니다. 이렇게 볼 때 진리 안에서 잘 살아왔는지 성찰하기 위해선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잘 살아왔는가를 돌아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저의 삶을 돌아볼 때, 저 스스로 예수님 곁에 잘 머물렀던 순간들과 그렇지 않은 순간들이 함께 스쳐감을 기도 중에 떠올려보게 됩니다. 특별히 스쳐 지나간 성찰거리를 한 가지 나뉘보면 미사를 대하는 저의 태도를 돌아보게 됩니다.

코로나가 시작된 이후로 수많은 군 성당들은 군 지침 아래 많은 시간을 비대면 형태로 미사를 봉헌하였고 대승이 일상화된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였고, 그나마 간부님들과 간부 가족 미사는 봉헌할 수 있었지만, 용사들과는 거의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이 안에서 아쉬움과 무력감, 안타까움 등의 감정을 느끼곤 했습니다. 하지만 항상 그랬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일상의 한 부분으로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해당 사항을 받아들이고 인정했던 순간들도 있었고, 미사가 조금 완화되어 제가 조금 더 많은 미사를 봉헌할 수 있게 되었을 때는 은근히 자리하고 있던 귀찮음

이란 유혹을 느꼈음을 고백해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당연히 머물며 그 예수님을 전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제로서 항상 충실하지 못했음을 성찰해 봅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시는 형제자매님들은 어떠하셨나요? 한 해 동안 예수님 안에 잘 머무르셨나요? 아니면 저처럼 그렇지 못한 순간들이 있으셨나요? 아마도 완벽하게 예수님 안에 머무르셨던 분들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비대면이 일상화 되다 보니 ‘오늘 한 번쯤은. 이번 한 번쯤이야.’라고 말하며 신앙생활의 충실성을 놓아버리게 될 확률이 높은 시기이니가요.

다시금 도입부의 이야기로 돌아와 봅니다. 양궁의 오진혁 선수가 외친 ‘끝’이라는 말로써 오늘의 글을 열었는데, 이 말을 할 수 있는 힘의 바탕에는 ‘10점’이란 확신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10점을 쏘았다는 확신이 느껴지기 위해선 그동안 얼마만큼 많은 활을 당겼겠습니까. 많이 당기기도 했겠지만, 그 감을 유지하기 위해 매일매일 끊임없이 노력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로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매듭짓는 순간, 가령 오늘의 전례 시기와 같이 한 해를 끝맺는 순간과 같은 시간을 마주할 때 자신 있는 목소리로 ‘끝’이라 말할 수 있으려면, 우리의 신앙생활 역시 꾸준한 수련과 노력이 있었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진리 안에 머무르려는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꾸준히 각자의 삶에 존재하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의 내가 완전한 신앙인의 모습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삶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남은 시간 동안 끝이 아닌 우리가 자신 있게 끝이라 말하기 위해 노력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박재우(미르헤리노) 신부
장성(6시산) 성당 주임

제 1 독 시
회 답 송
제 2 독 시
복음 환호송

다니 7,13-14
◎ 주님은 임금님, 위엄을 입으셨네.
묵시 1,5ㄱ-8
◎ 알렐루야.
○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받으소서!
다가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는 복되어라! ◎

복 음
영 성 제 송

요한 18,33ㄴ-37
주님이 영원한 임금으로 앉으셨네. 주님이 당신 백성에게 강복하여 평화를 주시리라.

성 김대건 인드레이 신부의 시한

열한 번째 시한

그 당시 최고의 권력자였던 김 대비의 동생 김두근이 살아 있었다라면 박해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는 조선 안에 외국인 신부님들이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신자들 중 어느 누구도 박해하는 것을 허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예비 신자이고 궁중의 2품 고관인 김정희와 순교자 유 아우구스티노(유진길)와 아주 친분이 두터웠습니다. 마침내 그는 많은 사람들로 부터 그리스도교인이 되었다는 평을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1838년경에 중병을 앓고 정신을 잃었으며, 1839년에 사망했습니다. 그래서 벽파들은 기회를 잡게 되었고 박해를 야기시켰던 것입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공경하올 스승님께 김해 김 안드레아가 올립니다.

열두 번째 시한

예수 마리아 요셉

리브와 신부님께

(서울에서), 1845년 4월 7일

조선 왕국의 대신들과 관장들 사이에는 어떤 계통, 즉 파벌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실상은 아무것도 아니고 다만 공연한 이름만을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그 하나는 벽파라 하고 하나는 시파라 하는데, 서로 반대하여 싸우고 있습니다. 이 두 파가 서로 대립하는 근본 이유는 각각 다른 의견을 서로 주장하는 데 있습니다.

이 당파 싸움은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았으나 지금은 가볍게 볼 수 없는 문제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두 파 사이에는 시기, 비난, 논쟁, 학살 등이 연출되어 서로 도발하고 고발하여 서로 내몰고 귀양 보내기에 급급합니다. 그들 당파는 다시 노론(老論) 즉 북인(北人)과 남인(南人)의 구별이 있어 각각 다른 당파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들은 대체로 노론은 벽파와 손잡고, 남인은 시파와 손잡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계속>

『성 김대건 인드레이 신부의 시한』 발췌, 성 김대건 신부 순교 150주년 기념 진기 자료집 제1집, 한국교회사연구소, 1996

복 음 묵 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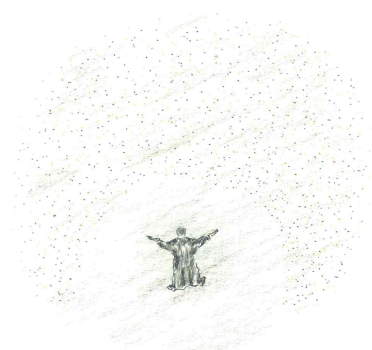
- 배영길(베드로) 신부 / 예수회

나는 은하를 가졌습니다.

나는,

저 아름다운

은하를 가졌습니다.



상화이야기

그리스도왕으로시의 예수님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시나이 성 카타리나 수도원에 그려진 이 이콘화는 현존하는 이콘 중 가장 오래된 것 중의 하나이자, 그리스도왕(전 세계와 우주의 왕, 판토크라토르) 이콘 중 가장 오래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그림을 자세히 보면 예수님의 양쪽 얼굴 및 머리 길이가 다른데, 이것은 예수님이 인성(왼쪽)과 신성(오른쪽)이 함께 합쳐진 분이시라는 것을 상징한다. 예수님께서서는 오른손을 들어 우리에게 축복을 내리고 계시며, 왼손으로는 두꺼운 성경을 들고 계신다. 이 주제는 후에도 많은 성당의 돔을 장식하는 모자이크화의 주제로 널리 쓰이게 된다.

예술적으로 어떻게 그려졌는지 간에, 천 오백 년 전에 그려졌다는 생각이 안들만큼 현대적이고 생생한 작품으로, 우리의 영혼을 관통하는 듯한 예수님의 눈빛과 근엄함은 오랜 세월이 지난 지금에도 깊은 울림을 준다.

적지 미상, 약 6세기경 지음 제작됨
이콘화, 84x45.5cm
상 카타리나 수도원, 이집트 시나이

‘은 우리의 임금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왕 대축일’을 지내는 오늘은, 십자가 위에서 조롱받으신 분께서 바로 우리의 임금임을 인정하고 기념하는 날입니다. 빌라도처럼 말로만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조롱하고 무시하고 짓밟았던 이들을 위하여 희생하고 봉사하신 분을 임금으로 여기고 충실히 섬기기를 약속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셨던 그 십자가의 왕으로서의 삶을 우리 또한 살아가리라 다짐하는 날입니다. 군림하는 왕이 아닌 십자가의 왕으로 오늘을 살아가시기를 기도합니다.

- 매일미사 '오늘의 특상' 발췌

김은혜(엘리사벳)

교 구 소 식

군중부원회 회원을 위한 미사 - 그리스도왕 대축일: 능의 이상현 신부

◆ 교구장 동정

- 주교좌 국군중앙 성당 미사
 때: 11월 21일(주일) 10:00
- 국장회의
 때: 11월 23일(화) 16:00

- 2021년 신임 군중수녀 오리엔테이션 (ZOOM 화상회의)
 때: 11월 24일(수) 13:00
- 제주해군 성당 신부 방문
 때: 11월 25일(목)
- 탐라대 성당 신부 방문
 때: 11월 26일(금)

“슬기로운 중” - “어떻게 하는 중이 충실하고 슬기로운 중이겠느냐?” (마태 24,45)